

||| 목 차 |||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포트홀(도로파임)」 관련 민원 분석

2024. 4.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

I. 분석 배경	1
II. 민원 현황	3
III. 주요 민원유형 및 사례	6
1. 포트홀 관련 도로이용 불편신고	6
2. 포트홀 사고로 인한 배상요청	11
IV. 개선 필요사항	15
1. 포트홀 관련 범정부적 대응기반 마련	15
2. 포트홀 감소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	18
3. 포트홀 관련 국민 편의성 확대	19
V. 조치 사항	21

I. 분석 배경

□ 최근 '포트홀(도로파임)' 현상이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로 대두

- 지난 겨울철 잦은 폭설과 폭우, 이상고온*의 반복으로 포트홀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어 관련한 온라인 여론과 민원이 대폭 증가 추세

* '23년 겨울철 관측 이래 최고 강수량(평년 약 27배), 역대 2번째 따뜻한 겨울 기록(기상청)



※ 기사, SNS 등 언급 기준 (정책여론 수렴시스템 문체부)

※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2.19.~2.25.)

※ 2월 2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포트홀

- 포트홀 급증으로 인해 높아지는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제공
 - 포트홀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및 생활안전 확보 기대

□ 포트홀 관련 민원분석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성 공유

- 포트홀 현상이 고속국도(한국도로공사 등)와 일반국도(국토부 등), 지방도(지자체)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불편민원 신고가 급증
 - 이에 관련 기관이 각기 포트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국민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민원분석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모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할 필요

〈참고〉 포트홀(Pot-Hole, 도로파임)

□ 포트홀이란?

- ▶ **[정의]** 아스팔트 도로포장이 파손되어 노면 일부가 항아리(그릇, pot) 모양으로 움푹 패어 구멍(hole)난 파손 형태
- ▶ **[문제점]** 차량의 주행 효율성 및 운전자 안전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어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리며, 또한 차량 파손을 유발시켜 재산상의 피해 유발

'포트홀' 민원접수 실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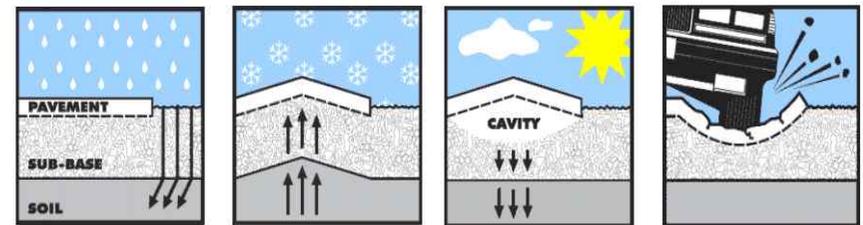


※ 출처: 민원정보분석시스템

□ 발생원인

- ▶ 주로 동절기나 장마철에 많이 발생되는데, 눈·비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아스팔트 균열 부분에 물기가 스며든 상태에서 반복된 차량 하중으로 포장 일부가 파손되어 발생

'포트홀' 발생 단계



〈발생 1단계〉

〈발생 2단계〉

〈발생 3단계〉

〈발생 4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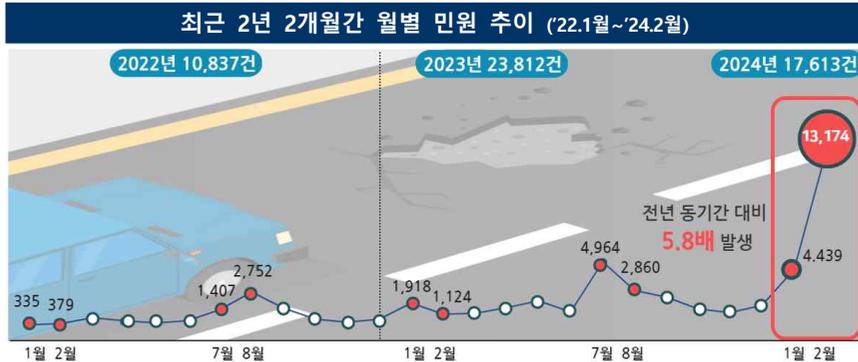
※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① **[아스팔트 균열]** 도로 노후화, 눈과 비, 겨울철 제설작업(염화칼슘) 등으로 인해 아스팔트 도로에 균열이 생겨 포장내부로 수분이 침투
- ② **[반복된 차량 하중]** 수분 침투된 상태에서 급격한 기후변화(동결·융하 반복)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반복된 차량하중으로 인해 도로 포장에 포트홀 발생

II. 민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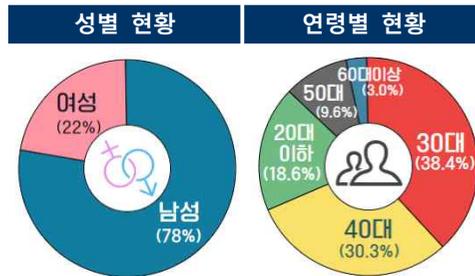
1 민원 추이

- 최근 2년 2개월('22.1월~'24.2월)간 민원분석시스템(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지자체 민원 창구)에 수집된 '포트홀' 관련 민원은 총 5만 2,262건
- 포트홀은 주로 여름철 집중호우와 겨울철 폭설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연중 1~2월, 7~8월에 집중되는 양상
- 특히 지난 겨울철 기록적인 강수량과 급격한 온도차 등으로 인해 '24.1월부터 포트홀 민원이 급증,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5.8배 발생



2 신청인 현황

- (성별) 남성(78%)이 여성(22%)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
- (연령별) 30대(38.4%), 40대(30.3%), 20대 이하(18.6%), 50대(9.6%), 60대 이상(3.0%) 순으로 30~40대 신청자의 과반이상 차지



* 연령 정보 확인 가능 6,960건(전체의 13.3%), 성별 정보 확인 가능 7,564건(전체의 14.5%) 대상

3 처리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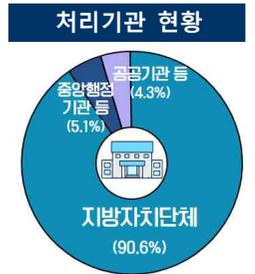
- 포트홀 민원은 발생한 도로의 관할*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기관 현황을 통해 포트홀 민원의 지역별 현황 파악 가능

* (참고) 도로 종류별 관리기관

도로종류	정의	관리기관	전체도로면적 대비 비율
고속국도	중요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이 이용하는 도로	한국도로공사(국토교통부장관이 위임)	4.3%
일반국도	중요도시, 지경항만 중요 비행장 등을 연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국토교통부장관	8.1%
		해당지역 지자체	4.4%
특별·광역시도	특별·광역시도 구역내의 도로	특별·광역시장	4.6%
지방도	도내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도지사	16.0%
시군·구도	시·군·구 구역내의 도로	시장, 군수, 구청장	62.6%

(출처: 국토부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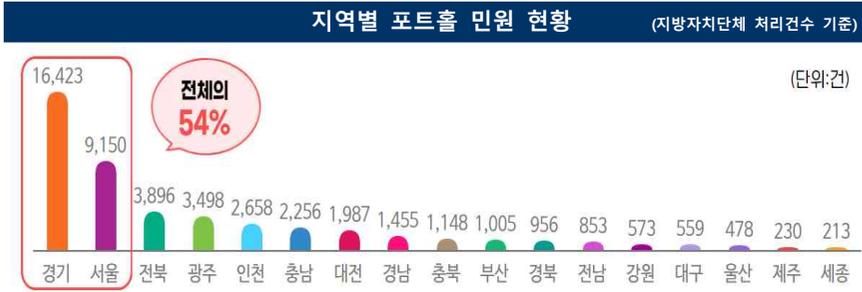
- (처리기관별) 기관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90.6%(47,338건)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이 5.1%(2,679건), 공공기관 등 4.3%(2,236건)의 순
- 처리기관별 민원현황이 기관별 도로면적 비율*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포트홀 민원 건수는 관할 도로면적 비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



- * 관리기관별 도로면적 비율 : 지방자치단체(87.6%) > 국토부(8.1%) > 한국도로공사(4.3%)
- 중앙행정기관 처리 민원은 대부분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일반국도에서 발생한 포트홀을 각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조치·처리한 건이 대부분
- 공공기관 처리 민원의 다수는 고속국도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처리한 것이나, 민자고속도로*는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기관에서 처리

* 민자고속도로: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건설, 운영·관리하는 고속도로(21개)

- (지역별) 전국 도로의 87.6%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트홀 민원의 대다수를 처리, 특히 민원의 과반 이상이 서울·경기에서 발생



- 다만, 포트홀 민원 특성상 지역별 인구, 도로면적 등을 고려한 민원건수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많은 포트홀 민원이 발생

인구 1만명 당 포트홀 민원 건수	도로면적 1km 당 포트홀 민원 건수
광주 24.7	광주 1.88
전북 22.2	경기 1.26
대전 13.8	서울 1.1
경기 12	대전 0.92
충남 10.6	인천 0.82
서울 9.7	세종 0.62
인천 8.9	전북 0.55
충북 7.2	충남 0.36
세종 5.5	부산 0.27
전남 4.7	울산 0.2

※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현황」 지역별 인구 기준 (통계청, 2024년) ※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 상 도로면적 기준 (국토부, 2022년)

광주광역시 포트홀 현황 기사

광주 도로 '포트홀 공포'...2758건 발생 차량파손 속출

지난달 폭설후 대량 발생...보름간 타이어 휠 훼손 등 218건 신고
고속도로·국도·일반도로 등 사고 지점 따라 보상 신청 접수처 달라
광주시 "재포장에 연 600~700억 필요...포트홀 근본대책 없어"

<광주일보, '24.2.5.>

<KBS, '24.2.29.>

Ⅲ. 주요 민원유형 및 사례

- ◇ 포트홀 민원은 △도로이용 불편신고와 포트홀 사고로 인한 △배상요청으로 구분
- 도로보수·재포장 요청, 포트홀 원인지적 등과 같은 '도로이용 불편신고'가 90.2%로 민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포트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차량파손 '배상요청'이 9.8% 차지



1. 포트홀 관련 도로이용 불편신고 (90.2%, 47,166건)

- ◇ 포트홀 전체 민원의 90.2%는 '도로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접수로, 대다수는 위치를 특정해 보수를 요청하는 단순신고 형태를 보임
- △위험상황 신고 및 보수요청, △재보수 및 보수방법 변경요청, △포트홀 원인지적 및 해결책 제안, △ 선제적 대응요청 등의 내용으로 접수
- (위험상황 신고 및 보수요청) 포트홀로 인한 위험 상황을 설명하고, 신속한 포트홀 보수를 요청하는 민원 다수

- ○○에서 우회전으로 가는 길 3차로에 포트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우회전 하려면 무조건 포트홀을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매일 지나가다보니 타이어 파손이 매우 우려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24.2.)
- 포트홀을 피해 운행하는 차량들이 차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24.2.)
- △△ 방면 도로가 너무 위험합니다. 포트홀에 눈이 고여 있는 곳은 깊이가 가늠이 되질 않아 피하러다 아찔한 관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큰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리조트 방문객도 많아져 작은 마을이지만 차량의 이동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곳은 한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24.1.)
- ◎◎ 정문 앞 도로에 교통량이 많은 지점인데 포트홀이 발생하여 이곳을 지나 다니는 운전자들의 통행불편과 차량파손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륜차 운행 중 이곳을 지나가면 바퀴빠짐 등 자칫 대형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신속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24.1.)

- **(재보수 및 보수방법 변경요청)** 보수불량으로 인한 재보수 및 평탄화 요청, 반복되는 포트홀로 인해 심각한 도로상태 개선을 위해 보수 방법 변경 및 재포장 요청 민원 등 접수

[포트홀 재보수 및 도로 평탄화 요청]

- 3차선 포트홀 메워두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메워졌네요. **완전 볼록하게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공사하셔야겠습니다.** ('22.8.)
- 포트홀 부위에만 임시로 땀질하여 조치해둔 상태인데, 대형 트럭의 통행량과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워낙 많은 도로라서 이렇게 **땀질된 부분이 압력에 의해 옆으로 밀려 10cm 가량의 높이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곳**이 해당 구간에 최소 4곳 이상 있습니다. ('22.10.)
- **도로는 아래로 패이고 있고 아스팔트로 너무 볼록하게 때워두어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충격이 심합니다.** 최대한 도로와 높이차이가 없게 평탄하게 만들어주세요. ('22.7.)

☞ **지자체 민원 답변**

해당 위치는 집중호우 시 발생한 포트홀로 인하여 긴급(응급) 보수로 진행 됨에 따라 일부 단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응급보수 성격 상 복구 후 차량 통행 시 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수재를 충분히 보충하여 **향후에 꺼짐 현상 등을 막고자 일부 기존 노면보다 약간 높이 보수**하나 불편을 느끼시는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재보수 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면 포트홀이 커서 **보수작업을 하셨는데, 너무 볼록 튀어나와 위험해**보입니다. 차량 전복 사고 날 것 같아요. ('23.10.)
- **포트홀 메울때 주변 지형이랑 평탄화 잘해주세요.** 볼록 튀어나온 포트홀 매꾸게 하나의 턱이 되어 자동차에 악영향을 줍니다. ('23.12.)
- 처음 포트홀 수리를 할 때 노면 평탄도를 잘 맞춰야 하는데 볼록 튀어나온 상태로 임시 보수공사 수준으로 해두니 차량에 충격이 많고 규정속도 주행시에도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24.1.)

☞ **지자체 민원 답변**

민원 제기하신 도로 구간에 평탄화 작업을 위해서는 일정한 두께로 아스팔트를 깔고 다져 마무리 할 수 있는 장비(휘니셔)를 사용하여야 하나 부분 보수에는 해당 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도로 구간을 매끄럽게 작업하는 것이 현재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후 예산 확보하여 전면 포장 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방법 변경 및 도로 재포장 요청]

- 계속 덧댐 형태로 복구하였으나, 반복적으로 발생하기에 **일부 절삭 후 아스콘 포장**하는 것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22.4.)
- 왜 보수공사를 진행하면 그 형태가 1주일도 넘기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다시 포트홀이 형성되나요?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렇다면 **더 양질의 보수공사가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2.)
-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도로 통제로 인한 불편이 있겠지만, 도로의 상태가 너무 나빠 단순히 불편이 아닌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만큼, 포트홀을 땀질하는 식의 보수가 아닌 문제가 있는 구간 전체를 재포장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최대한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22.10.)
- △△ IC 진입로에 포트홀이 임시포장으로 보수되고 있지만 이제는 너무 파손이 심해 재포장을 해야 합니다. 이곳은 특히 차량이 속도를 내는 구간인데, 앞 또는 옆 차량이 **포트홀을 피하려고 갑자기 핸들을 꺾는 운전자**가 있어 **고속주행 중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을 당했고 목격했습니다. 특히 동절기가 오면 주변이 어둡고 전방시야도 확보가 안되어서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노면 파손구간에 대해 임시포장이 아닌 재포장이 시급**합니다. ('23.4.)

☞ **국토교통부 민원 답변**

국토부에서는 공용 연수에 따라 긴급 구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도로 재포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해당 구간은 설계 기준치보다 많은 중차량의 이용에 따라 공용 연수에 비해 빠른 손상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무소에서는 포트홀 부분, 요철부, 중차량으로 인해 움푹 들어간 곳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심각한 일부 구간을 절삭하고 바닥 다짐을 새로이하여 구간 재포장(소파보수)을 시행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트홀 원인 지적 및 해결책 제안)** 겨울 제설제(염화칼슘) 과다 사용, 과적차량 운행으로 인한 포트홀 심화 지적, 도로포장재료 내구성 강화 요청 등

[제설제로 인한 포트홀 심화 지적]

- 포트홀이 심각합니다. **염화칼슘 다량 살포**로 관내도로 포트홀 심각하니, 조속히 조치바랍니다. ('22.12.)

- 올해부터 늘어난 포트홀 원인에는 **과도한 염화칼슘(제설제) 살포**가 있습니다. 결빙, 눈길로 인한 민원이 포트홀 민원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눈이 오든말든 **사전살포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업사 등에서 포트홀 사고 빈도를 봐도 1년치가 2개월 사이에 전부 일어났다고 합니다. ('24.3.)

※ 겨울철 대형사고 유발 우려가 높은 도로의 살얼음(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도로를 순찰, **제설제 예비·재살포 대폭 확대**
 ⇒ **적설과 관계없이 강우, 안개, 서리 등 살얼음 발생 조건 충족시 제설제 살포**
 (출처: 국토부, 「2023년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시행계획」)

※ 눈비 이후 기온이 급강하로 도로 살얼음 관련 사고가 우려되므로, 주요 **도로 및 결빙 취약구간 등에 제설제 사전 살포**하도록 유관부처·기관 및 17개 시도 등에 당부
 ⇒ **노면온도, 습도 등 도로여건에 따라 결빙취약구간 등에 제설제 사전 살포**
 (출처: 행안부, 「2023년 대설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 매년 눈발만 조금 날려도, 기온이 영상인 날씨에 비왔다고, 날씨가 춥다고 특하면 염화칼슘을 제설제를 뿌려대는데 너무 심합니다. **필요 이상의 양을 도로에 뿌려내고 있습니다.** 눈길, 빙판길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조치라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네요. **포트홀을 발생시키고 잔디와 수목은 병들어가**고 특히 **자동차들은 부식되어 갑니다.** 또한 염화칼슘이 우수 등과 함께 하천으로 방류되면 수질오염 등 환경파괴를 유발하는데 지자체가 단순히 **민원을 잠재우려고 과잉, 과다로 제설 사용을 남용**하고 있으니 제설제 사용을 최소화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3.1.)

☞ **지자체 민원 답변**

우리 시에서는 제설제 살포를 통한 제설작업이 최소화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날로 강조되고, **통행 불편으로 인한 불만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제설제 사용을 줄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제설제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자 함을 말씀 드립니다.

- **(친환경 제설제 사용 건의)** 염화칼슘이 아닌 제설제를 뿌렸으면 합니다. 도로에 뿌려진 염화칼슘 제설제로 자동차 하부가 빨리 부식되고, 아스팔트가 약해 지기도 하며, 도로 포트홀의 주범이 됩니다. 또, 도로의 구조물도 쉽게 부식되며, 도로에 뿌려진 제설제가 인근 지표수와 지하수로 침투해 하천과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23.12.)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상태 악화 지적**]

- ○○제철 주위 **불법 과적차량들로 인하여 도로파손 및 포트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손정도가 심하여 차량에 전달되는 충격이 극심합니다. ('24.2.)
- 재포장 구간 이후에 **과적차량으로 인한 노면침하**로 인해 차선변경시 차량에 큰 충격이 옵니다. 안전 운행에 매우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3.9.)
- △△레미콘 회사를 진출입하는 콘크리트 믹서차량 및 25톤 덤프트럭들이 많아 **도로파손 원인이 과적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위험이 있어 도로보수 및 과적단속을 요청드립니다. ('23.7.)
- 포트홀이 너무 많습니다. 원인 파악 및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곳인데 과적 및 과속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22.10.)

[**도로포장재료의 내구성 강화 요청**]

- 제설작업으로 인한 도로 파손은 이해합니다만 진짜 범위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파손정도가 너무 심해요. **애초에 불량 아스팔트인건지...** 공사차량들도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빠른조치 부탁드립니다. ('24.2.)
- 한 번 생긴 포트홀 자리는 철 지나면 계속 또 포트홀 생기는 겁니까? **도로 보수 할 때 튼튼하게 좋은 자재로 제대로 좀 해주세요.** ('24.1.)
- 매년 보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도로 내구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보수를 해도 포트홀이 재발하거나 도로가 울퉁불퉁해지는 등 불편함이 많으니 아예 도로를 새로 포장해 주시거나 **내구성이 좋은 재료로 보수해주셨으면 합니다.** ('22.9.)
- **아스콘 품질을 정상화시켜 내구성 강한 아스팔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런 1, 2년 만에 부쉬지는 아스콘 업체는 퇴출시켜주세요. ('24.1.)
- 매년 비만 오고나면 저곳에 포트홀이 생깁니다. △△도로는 덤프트럭같은 무거운 차량들이 자주 지나다닙니다. 뉴스를 보니 서울시는 **지난 2010년 공항대로 버스정류장에 고강도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설치**했고, 지난 보도자료를 통해 단 한 건의 포트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에도 **내구성이 강한 콘크리트 포장을 진행하면 어떨지** 싶습니다. ('22.11.)

서울시 시기술로 선제적 발견부터 신속 보수까지...포트홀 저감대책 추진

- 도로 위 버스·택시 2천대에 '인공지능(AI) 포트홀 자동탐지 시스템'...신고보다 빠른 탐지
- 매년 포장상태 전수조사, D·E등급 정비...최근 3년 평균 530억 투입, 연간 180만㎡ 정비
- 기존 아스팔트보다 내구성 높은 **'고강성 포장'** 확대 적용...올해 중앙버스정류장 20곳 설치
- 작업량 3배 많은 '포트홀 전문 보수장비' 도입...재료~시공까지 포트홀 저감 연구 지속
- 오세훈 시장 14일(목) 오전 도심 포트홀 발생 현장 찾아 포트홀 대책 및 보수 현장 점검
- "시민들이 도심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발견된 포트홀 빠른 시일 내 바로 처리할 것"

<서울시 보도자료('24.3.14.)>

- (기타 건의) 포트홀 관련 선제적 대응 요청, 포트홀 신고시 불편사항, 도로 관할기관 확인 어려움 건의 등

[포트홀 선제적 대응 요청]

- ◎◎자동차전용도로 전반에 걸쳐 포트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것들도 더러 보이는데 여름 장마철이 되면 커져서 위험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제적으로 안전점검 및 조치 부탁드립니다.** (‘24.2.)
- 담당부서는 보수요청이 잦은 위치를 데이터를 모아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미리 보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23.8.)

[포트홀 신고시 사진 필수첨부 불편]

- 사진을 첨부하기엔 **해당 구간이 너무 길고, 차량 통행이 많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까 촬영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3.11.)
- 포트홀 수리해주세요 그리고 **운전중에 포트홀 발생하는데 사진 첨부하라고 하면 어떻게 첨부하라는건가요.** 신고할 때 사진첨부는 ‘선택’으로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4.2.)
- 주행 중에 사진은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사진 첨부는 드릴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전을 위해서 꼭 해당 구간 도로 정비 부탁드립니다. **주행 중에 사진은 찍을 수가 없는데 신고 시 사진첨부는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변경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23.7.)

[도로 관할 기관 확인 어려움 건의]

- ○○시청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도로주식회사 관할구역이라 해서 다시 연락을 했지만 ◎◎도로주식회사에서는 포트홀 주변 △△건설쪽 담당이라고 해서 다시 △△쪽으로 연락을 했지만 △△에서는 ◎◎관할이라고 하면서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도로 관할은 누구이며,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나 ◇◇도청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22.1.)
- 국토관리부에 문의하니 ■■광역시 소재 담당구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광역시에 문의를 하니 ●●구청 소재 담당구간이라고 합니다. (‘23.1.)
- 포트홀로 인한 차량 충격 후 너무 위험하다 판단하여 ▲▲톨게이트 사무소 담당자와 통화 하였는데, 해당 구간은 **고속도로공사 관할이 아니라 ☆☆구청 관할이니 그쪽으로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23.7.)

2 포트홀 사고로 인한 배상요청 (9.8%, 5,098건)

- ◇ 포트홀 전체 민원의 9.8%는 포트홀 사고로 인한 차량파손 ‘배상요청’ 내용
 - △배상절차 문의 및 배상접수, △배상 접수절차 관련 불만, △도로별 상이한 배상방식 이의제기 등의 내용으로 접수

- (배상절차 문의 및 배상접수)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으로 배상청구 절차 문의 및 배상요청 접수

- 진입로에 커다란 포트홀 있습니다. 수리 요청드립니다.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가 파손되어 수리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상절차 안내 요청드립니다.** (‘22.1.)
-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자동차 주행하던 중 도로 포트홀에 의해 자동차 타이어 파손이 발생되었고 이에 따라 금전적 손실이 발생되어 배상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배상청구하는 절차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23.7.)
- IC 빠지는 램프에서 큰 2개의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타이어 왼쪽앞바퀴를 교환하는데 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합니다.** 관련 파일 첨부하여드립니다. (‘23.1.)
- ◇◇국도 포트홀로 인한 차량 타이어 파손 **손해배상 청구 신청합니다.** 국가 배상법 3조 영조물 책임에 의하여 국가는 영조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그 손해를 보전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4.2.)

- (배상 접수절차 관련 불만) 포트홀 관련 배상절차 안내 부재로 인한 불편함, 유선접수 어려움 등 배상절차에서 제기되는 불만 접수

- 피해보상 신청을 하려고, 보험출동확인서와 수리견적서 영수증 등을 준비했는데, **피해접수 절차나 신청서식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리려 합니다. (‘22.1.)
- 포트홀 타이어 파손으로 민원콜센터를 통해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받았지만, 계속 통화 중으로 보상신청절차 안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상 바쁜 것은 이해는 하지만 민원인 역시 생업을 소홀히 하고 전화 통화에만 며칠을 허비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유선 통화 외 온라인 접수 등 다른 방법 안내바랍니다.** 실제 보상까지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일단 접수해놓고 생업에 집중하고 싶는데 **접수조차 할 수 없으니 스트레스가 큼니다.** (‘24.2.)

- 차량이 기울기 시작해 위험하여 유턴해서 차를 세우고 ▲▲구청 전화했는데, 도로가 ●●시 관할이라고 당직실로 연결하니, **당직실에서 사고현장을 사고 당사자가 찍어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을 찍으려면 10톤차가 다니는 어두운 도로이고, 비도 오고 차는 주저앉아 이미 주행이 불가했습니다. **사진은 위험해 저희 차량이 당한 곳 첨부**합니다. (‘24.2.)

○ (도로별 상이한 배상방식 이의제기) 포트홀 사고 발생 도로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 배상방식에 대한 불만제기

- 포트홀 사고를 당하고 알아본 결과 어떤 도로는 보험에 가입되어 처리가 간편한 반면 어떤 도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국가배상을 진행하여야 하는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포트홀 사고 나면 보험 가입된 도로이길 빌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여름이고 비 많이 올 텐데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3.5.)

☞ 지자체 민원 답변

- 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을 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 우리 시가 소유·관리하는 시설 하자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피해를 입은 분의 손해를 배상해 주도록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나. 다만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모든 공공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쉽게도 귀하께서 포트홀 사고를 당한 ○○ 주변 도로의 경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 따라서 귀하의 사고와 같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공공시설로 인한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배상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국가배상법」제12조(배상신청) 규정에 의거 사고 당시의 정황근거 및 입증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지역 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신청(인터넷에서 '국가배상심의회 배상신청 절차' 검색)하시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자체 민원 답변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 보상)에 대하여는 기 발송한 보험 접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면 영조물배상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 배상이란 방법이 있다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었으나, 도로가 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도로 관리주체마다 배상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며, 세금 잘 내는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배상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2.5.)
-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 달라고 하니 잘 모르더니, 이후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속도로 회사는 내부적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없고, 특히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배째라식으로 대응하는 고속도로 회사의 행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속도로의 30년 운영 관리권을 받은 고속도로 회사가 이런식으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22.1.)

☞ 민자고속도로 운영기관 민원 답변

- 당 고속도로는 노면불량으로 인한 차량파손 발생 시 2가지 방법에 따라 배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고객님께서 차차로 보험처리를 진행하신 후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소송
 2. 고객님께서 자비처리 후 당사로 직접 소송 제기 방법.

* (참고) 도로별 포트홀 사고 배상방식

	관할 기관	자체배상절차 (유/무)	배상방식
국도	국토교통부	무	국가배상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운영기관	유	자체 배상 또는 배상책임보험
		무	차차 보험처리 후 구상금 청구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해당 지자체	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무	국가배상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7월에만 포트홀 4600곳...피해배상은 '하늘에 별 따기'

2023-09-05 16:14 부산CBS 정혜린 기자 |

포트홀 사고났는데 "보상 안돼요"... 시민 몰랐던 '도로 보험'

오원경 기자 | 승인 2023.09.08 00:02

도로 대로등 도심곳곳 포트홀 사고 잇따라 올해 7월 한달만 에 포트홀 4600여곳 발생 피해 배상 위해서 국가배상청구해야...절차 복잡하고 인정 비율 낮아 영조물배상공제 있지만... 도로 대부분 대상을 지정 안 돼

시, 포트홀 등 공공시설물에 사고 시 국가배상 가능 국가배상 1년 분계 기간 소요되고 절차 복잡해 불편 도내 시 단위 지자체 중 만 도로 보험 가입 안 돼

<지자체별 상이한 포트홀 배상방식 관련 기사>

IV. 개선 필요사항

- ◇ **포트홀은 도로 파손 복구 비용과 보상 비용 등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고충, 국민들의 불편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킴**
 -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개별적인 대응을 넘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대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포트홀로 인한 국민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고자 함

1 포트홀 관련 범정부적 대응기반 마련

① 포트홀 관련 범정부 협업체계 구성·운영

- 늘어나는 포트홀 민원, 지자체별 상이한 보수방식과 한정된 예산 및 인력 등을 감안할 때 **포트홀 현상은 일부 지자체와 담당 공무원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 최근 **포트홀 보수공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관련해 악성 민원에 시달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 발생
- 포트홀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국민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바,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 구성·운영을 통해 공동 대응 필요**
 -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등 **도로 관할 기관** 뿐만 아니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도로학회 등 **포트홀 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포트홀 현상의 근본적인 대책방안 모색
 - 각 기관의 우수 관리사례 및 관리시스템 등을 공유하고 공동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역량을 모아 공동으로 포트홀 저감 노력 필요**

포트홀 관련 협업 사례

서울시-국토부, 도로 파임 대책 연구단
등록 2018.09.20 11:15:00

20일 서울시-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도로포장 정채모임 개최' 포스트(예방·신환경 도로포장 등 특수기능 도로포장 기술·관리 등)



<뉴스시스, '18.9.20.>

국토부-제주도-건설부, 도로포장관리 MOU 체결
실현일자 2018.08.30 17:09

노면홀(포트홀)·균열 등 도로 위험요소 선제적 관리

[국토일보 김운현 기자] 제주 지역 폭설 및 해빙기에 인한 도로 파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기 도로포장관리시스템 등 안전관리체계를 지원한다.

20일 국토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도로포장관리 업무협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로의 노면홀(포트홀), 균열 등 위험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노후도로의 체계적 보수를 위해 국토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관리체계를 지자체도 활용토록 협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일보, '19.8.20.>

② 포트홀의 체계적 보수·관리를 위한 매뉴얼(지침) 정비 및 배포

- 포트홀 집중발생 시기(집중호우, 폭설)에는 각 기관의 한정된 인력 등으로 인해 신속 보수가 어려운 상황, **기관에 따라 현장인원에게 일임된 보수방법**으로 인해 **보수불량·재보수** 등과 같은 추가민원 발생
 - 포트홀 보수 작업체계(△계절별 보수방법·절차, △보수재료 적용기준 등)와 관련해 **기관 공통으로 참고할 수 있는 지침 필요**
 - 포트홀 보수 매뉴얼(지침)* 정비 및 배포를 통해 전국 지자체 등이 공동 활용함으로써, **포트홀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보수·관리 기대**
- * '20. 8월 마련된 국토교통부 포트홀 긴급 보수업무 수행요령 현행화·재정비

③ 민원 처리시 활용 가능한 포트홀 처리상황별 우수답변 공유

- 급증하는 포트홀로 인해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 담당 공무원은 **늘어난 도로보수와 함께 민원답변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이중고 발생
 - 한정된 민원 처리기한으로 인해 보수를 마친 후 답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특히 보수 계획 등 세부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 없이 민원처리를 완료하게 될 경우 2차 민원 다수 발생

민원 사례	<p>"보수완료했다는 메시지도 받았는데 현장은 그대로이고 더 많이 생겨던데 정말로 보수한 것이 맞는가요?" (24.2.)</p> <p>"민원처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네요. 포트홀 보수작업 재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보수완료 이미지 첨부해서 결과 통보해주세요." (24.1.)</p> <p>"앞에 신청한 포트홀 보수요청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아 재요청드립니다. 시스템상 처리만 하지 마시고 실제 언제까지 완료될지 납기도 알려주시고 실제 보수완료 후 처리 부탁드립니다." (23.7.)</p>
--------------	---

- **포트홀 민원 처리시 상황별로 참고할 수 있는 답변***을 공유 활용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민원답변 부담을 줄이고, 국민에게는 상세한 포트홀 처리 절차 안내를 통해 추후 2차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

* (참고) 포트홀 주요 상황별 민원 우수답변 사례(예시)

(※ 출처: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분	답변 예시
보수	<p>보수 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폭설, 우천, 기온변등 등 기상변화로 인해 도로상 포트홀이 다수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에서는 노선별 응급 보수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 현장 확인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포트홀 보수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도로 재포장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겨울철 기온 하강에 따른 하자공사 방지를 위하여 기온 여건을 고려하여 진행할 예정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보수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에서는 도로파손시 차량 파손 및 사고 위험성이 크기에 상온 아스콘(아스팔트 재질의 도로 보수재)으로 즉시 보수를 하고 원활한 주행성 확보를 위해 소파보수를 이어서 하는 긴급보수체제로 대응하고 있으며 해당 복구는 주행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임시 복구로서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고려되지 않은 보수이다 보니 후속 강우에 파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도로재포장 등을 검토중이오니 도로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책임보험 처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에서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도로 순찰을 통해 도로안전 위해요소 제거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도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차량파손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접수절차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도청 홈페이지 → 검색창에 '영조물 배상공제' 입력 → 메뉴에서 '영조물배상공제' 선택 → '영조물 배상공제 접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나. 영조물배상공제 접수양식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로 접수→접수시 지역 '○○'로 지정 * 증거자료 :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파손 사진 등
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포트홀로 인하여 국도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차량파손 배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포트홀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은 국가배상으로 가능하며, 「국가배상법」제12조(배상신청) 규정에 의거 ○○고등검찰청 내에 설치된 국가배상심의회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신청하시면 소정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 배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등검찰청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국가배상 신청안내 참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배상 처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포트홀로 인하여 국도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차량파손 배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포트홀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은 국가배상으로 가능하며, 「국가배상법」제12조(배상신청) 규정에 의거 ○○고등검찰청 내에 설치된 국가배상심의회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신청하시면 소정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 배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등검찰청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국가배상 신청안내 참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포트홀 감소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

① 포트홀 저감 관련 연구 실시·공유

○ (포트홀 감소 효과 제설제 사용) 겨울철 제설작업시 다량 살포한 염화칼슘이 도로 포장의 약한 부위를 손상시키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바, **염화칼슘 적정사용량 및 대체 제설작업에 대한 연구 필요**

- 친환경 제설제의 효과성, 대체 제설작업 방안 등을 연구한 결과를 겨울철 제설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제설 효과와 포트홀 저감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

*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국토부), 제설 업무수행 요령(행안부) 등

○ (내구성 있는 도로포장재 및 포장공법) 도로종류별로 적용할 수 있는 도로포장재, 상황별 최적화된 도로포장공법 등 연구해 관련 기관이 공유·적용하는 등 포트홀의 근본적인 감소를 위한 중·장기적 노력 필요

- 기후변화, 차량하중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아스팔트 포장 시공 전반에 대한 품질 개선 연구를 지속·반영함**으로써 내구성 있는 도로 구축

② 최신 시스템을 활용한 도로순찰을 통해 선제적 대응

○ 포트홀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신고에 의존하는 포트홀 관리에서 벗어나 최신 시스템(AI)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탐지·보수하는 방안 확대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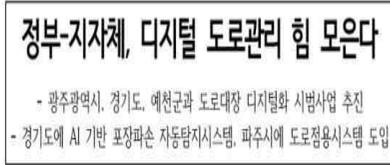
* (참고) AI 포장파손 자동탐지시스템 (국토부, 21.2월 도입)



- 포트홀 보수관리를 위해 국토부, 일부 지자체 및 한국도로공사 등은 AI를 활용한 포트홀 탐지시스템 등을 운영함으로써 사전 보수체계 가동

- 국토부는 'AI 포장파손 자동탐지 시스템'의 지자체 공유를 확대 중인바, 전국 지자체에 해당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포트홀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반 마련 필요

AI 포장파손 자동탐지시스템 공유사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3.7.14.)>

○ 또한,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포트홀 이력을 활용해 빈발구역을 확인하고 집중발생 시기 순찰강화를 통해 신속한 도로파임 탐지 및 보수 기대

3 포트홀 관련 국민 편의성 확대

1 포트홀 신고·배상 관련 절차 개선

○ (도로 관할기관 확인 시스템 마련) 국민들이 포트홀 발생 도로의 관할 기관을 확인하기 어렵고, 배상절차에 대한 안내도 제각각이라 신고·배상요청 접수단계부터 어려움 발생

- 포트홀 신고·배상요청시 도로명(주소) 검색을 통해 관할기관 확인이 가능하도록 포트홀 신고 시스템* 구현 검토

* 안전신문고(행안부), 척척해결서비스(국토부) 등

- 도로 관할기관 확인 후 각 기관의 배상절차 안내 사이트로 링크 연결, 포트홀 신고부터 배상절차 안내까지 윈스톱으로 해결 가능토록 개선

○ (신고시 사진첨부 필수항목 변경) 안전신문고를 통해 포트홀 신고시 사진첨부가 필수항목으로 되어 있어, 신고자의 불편 야기

- 주행중 발견한 포트홀 신고시 촬영된 사진 등이 없어 불필요한 사진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사례 다수, 해당 포트홀 처리자 역시 불편 가중

- 신고위치 GPS 설정기능 등으로 포트홀 위치가 확인 가능한 경우, 사진첨부는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2 신속한 국민피해 보상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

○ 포트홀 발생도로의 관할기관에 따라 상이한 배상방식으로 인해 불만 지속

- 다수의 지자체* 및 고속도로 운영기관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운용하고 있는 만큼, 미가입 지자체 및 기관의 가입 검토 필요

* 17개 광역자치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다만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개별적으로 가입·미가입 사례도 존재

**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지자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자로 국민이 피해를 입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해서 처리, 수개월이상 소요 되고 복잡한 국가배상청구와 비교해 빠르고 손쉽게 처리 가능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 지자체 관련 기사

대전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확인하세요"

A. 신영은 기자 · 2023.12.08 14:45

| 도로·공원·체육시설 등 이용 시 관리 하자로 인한 피해 배상

[충남일보 심영은 기자] 대전시는 도로, 공원, 체육시설 이용 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할 수 있는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 문제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이 훼손돼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처리하는 것이다. 시는 지방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엔 빠른 보원처리를 돕는 제도라고 전했다.

<충남일보, '23.12.8.>

구미시 도시시설물 피해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빠른 보상 제공

김희규 기자 · 2024.01.16 14:52

| 포트홀 등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피해, 배상보험으로 해결 가능

구미시는 도시시설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계획 도로 2천534개 노선 812km를 영조물 배상 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신문, '24.1.16.>

3 포트홀 발생 정보 접근성 확대

○ 포트홀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가 포트홀 예상 구간에서는 감속하고, 급제동·급조향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한 바, 운전자에게 포트홀 다발 구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효과적

- 포트홀 탐지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포트홀 위치 및 보수현황 등을 공유·활용*해 운전자가 포트홀 다발구간을 사전인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검토

- * 민간 내비를 통해 국민들에게 ‘포트홀 위험 지역’, ‘포트홀 신고다발지역’ 등을 안내함으로써 운전자 주의를 확보, 사고예방 가능
- ** (참고) 교통신호정보를 내비에 공유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기여(서울시)



<뉴스시스, '22.3.14.>

V. 조치 사항

□ 관련기관 제공

-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포트홀’ 현상 저감을 위해 개선 필요사항 검토 및 반영 요청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전달

□ 대국민 공개

- 분석자료 공개(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및 보도자료 배포